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다니엘의 저작 시기를 말한다. 모든 '예견'은 박해 시기까지는 정확하다. 예언은 아마도 이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씌어졌을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 말미에서 확신에 차 예견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이 예언은 아티오쿠스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전에 기록되었음에 틀림없다. (콜린스,『히스리성서 개론』, 437)

I. 다니엘서

A. 구성

- 이야기와 환상
  - 이야기: 1-6 장. 왕궁을 중심으로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
  - 환상: 7-12 장. 장래의 일에 관한 일련의 계시/환상으로 묵시문학의 대표적 표현.
- 히브리어와 아람어
  - 히브리어: 1 장, 8-12 장.
  - 아람어: 2-7 장. (더 정확히는 2:4b-7:28)

B. 내용/메시지

- 신앙인의 모델로서의 다니엘
  - 전통적으로 지혜, 경건, 덕을 갖춘 사람(겔 14:14, 20; 28:3). 특히 이방 제국 식민통치 하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 후대에 모범적, 이상적 삶의 본을 보임.
  - 꿈 해석을 통해. 이방 통치자의 꿈이 그를 괴롭힘=> 해몽을 할 사람을 구함=> 자국 내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와 다니엘의 승부=> 다니엘이 해몽=> 다니엘의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
  - 시험/위기 상황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신/왕에게 절을 하길 거부=> 생명의 위협=> 기적적 구출=> 유대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
- 다니엘서가 쓰인 기원전 2 세기는 시라아 헬라제국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 세(에피파네스)가 "멸망의 가증한 것"(abomination of desolation)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움으로써 유대 전통을 없애고자 했다(9:27; 11:31; 12:11). 거부할 시, 죽음의 위협.
  - [17]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7-18)=> 하느님이 우리 조상을 구했으면, 우리도 구할 것이다.
  - 그렇지 않다면, 의로운 사람들이 종말에는 보상을 받을 줄 알라. 책의 전반부(1-6장)에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만, 후반부에는 다니엘 조차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지혜로운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녕 숨겨진 일이고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 바벨론, 메대와 바사 등은 문학적 장치, 시대적 배경일 뿐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니엘이라는 전설적 인물(겔 14:14, 20; 28:3)을 통해 모범적인 유대인상(象)을 그린다.
    -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3 년, 곧 606 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았고(단 1:1), 7 년간 짐승으로 변하지 않았으며(다니엘 4 장)
    - 벨사살(Belshazzar)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Nabonidus)의 아들로 아버지가 자리를 비웠을 때, 잠시 바빌론을 통치했지만 왕위에 오른 적은 없다(5 장). 또한 '메대 사람 다리우스'(5:31; 6 장)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 숨은 메시지
  - '세상의 역사'를 되새기며 초점을 맞춘 "작은 뿔"(8:9-14)은 안티오쿠스 4 세를 가리키고, 시기적으로 기원전 167-164 년에 해당한다.
  - 마카베오 상 1 장에서는 안티오쿠스와 예루살렘의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다니엘서에서는 하느님과 하느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우주적 갈등으로 묘사.
- 칠십인역(LXX) 추가분

- 아자랴(Azariah)의 기도, 세 젊은이의 노래
  - 단 3:23-24 사이에 첨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진 후
  - 아자랴의 기도(1-22), 풀무불 묘사(23-27), 세 젊은이의 노래(28-68)
- 수잔나(Susanna): 수잔나, 사사가 된 두 장로, 다니엘 (mastic tree, evergreen oak)
- 벨과 드래곤 이야기: 벨 제사장들과 다니엘의 한 판 승부; 사자굴 속의 다니엘

C. 신학적 의미

- 1-6 장의 이야기(Narrative)가 7-12 장의 환상(vision)보다 먼저 쓰였다는 설. 이런 궁중 이야기—요셉, 에스더—는 바벨론 포로기에도 유행했고 다니엘 이야기 설정 역시 바빌론 궁전을 배경으로 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후대 역사적 위기상황 하에서 새롭게 읽히고 여기에 새로운 문학적 장르로 꿈/환상이 첨가된다. 이것이 성서가 갖는 특징 중 으뜸이다.=> 적응력(adaptability)
- 주요 사상/본문들
  - "옛적부터 계신 분," "인자 같은 이"—단 7:13-14
    1)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가?
       - 집합 명사. 당시의 하시딤(경건파 유대인)을 지칭=> "성도들"(7:18, 21, 25). 다니엘서가 이들을 위해 집필.
       - 개인=> 메시아/그리스도. 이 경우 유대왕을 지칭.
    2) 인자 같은 이가 "오다"=> 어디로?
       - 옛부터 계신 이에게. 우리가 그것을 본다. 꿈/비전 속에서--마치 T.V. 화면을 보듯
       - 이것을 인자/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묘사/이해하기 까지는 엄청난 신학적 비약을 전제로 한다.
  - 70 이레 (seventy weeks). 예레미야 예언(25:11-12; 29:10)—다시 읽기
    1) 역대하 36:20-21=> 70 년 포로기. 예언의 성취
    2) 단 9:24-27=> 예레미야 예언의 년 수를 깨닫다(9:2).
       - 70 년을 70 이레로=> 490 년
       - 마지막 한 이레, 곧 7 년이 핵심. 마지막 이레의 절반, "한 때, 두 때, 반 때"(7:25; 12:7)가 지나 "제사와 예물이 금하여짐"(9:27)=> 안티오쿠스 4 세 때.
       - 이 시기가 점차 연장됨. 7 년의 반(1/2 x 2555=1277.5)=> 1290 일 (단 12:11)=> 1335 일 (단 12:12)
  - 부활 사상 (단 12:1-3)
    1) 히브리성서에서 개인의 부활에 관한 유일한 구절이다. (사 26:19, 겔 37 장 등은 공동체 부활에 관한 시적 표현으로 읽는다.) cf. 2 Macc 7:11, 14.
    2) 두 종류 부활: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 마태복음 25:31-46, 영벌과 영생.
    3) 부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life in the age-to-come=> 이것이 영생(ζωή αἰώνιον)의 성서적 의미. Cf. 요 17:3.
    4) 부활 사상은 현세 도피적이고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세상에 저항하며 하느님 나라에 순종하라는 피끓는 도전이고 치열한 삶, 생명의 손짓이다.

Ⅱ. 마카베오 상·하

A. 마카베오 상

- 마카베오 가문과 그 직계 후손인 하스몬 왕조에 관한 이야기로, 이 왕조는 로마가 기원전 63 년 예루살렘을 정복하기까지 약 백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 기원전 167-164 년 시리아왕 안티오쿠스 4 세(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한 반응에 초점.
  -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이교도 제단, "멸망의 가증한 것"(마카베오 상 1:54 // 단 11:31)
  -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거나(할례 등) 이교도의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처형됨.

- 마카베오의 아버지 마따디아(Mattathias)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방인 희생제사에 참여한 유대인을 죽인다. "전에 비느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2:26).
  - 하지만 이들은 필요에 따라, 율법을 범하기도 했다. 곧 동료들이 안식일에 공격한 적들에게 군사적 저항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방어를 목적으로 안식일에 싸우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하시딤이 동조한다(마카베오 상 2:29-48).
  - 마카베오 상 나머지 부분은 이 가문의 영웅적 활약을 기술한다.

B. 마카베오 하

- 같은 시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술.
  - 박해의 원인을 헬레니즘 개혁에 둔다.
    - 대제사장 오니아스(Onias Ⅲ)의 동생 야손(Jason)은 왕에게 뇌물을 주고 대사제직을 얻고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짓고 그리스식 생활방식을 도입한다.
    -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메넬라오스(Menelaus)는 더 많은 뇌물을 왕에게 주고 대사제가 되며, 합법적 대사제인 오니아스를 청부 살해한다. 야손이 전복을 꾀하지만 실패하고,
    - 한 편, 이집트를 두 번째 침공한 안티오쿠스 4 세는 예루살렘의 분쟁소식을 듣고 폭동에 대비하여 군대를 보낸다. 이 후 왕은 유대종교를 억압하는 대책을 세우지만, 이는 헬라 통치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유일신교를 주장하는 유대교를 '정상적인' 그리스 제의에 통합하려고 했는지 모른다.
  - 주요 본문(2:19-:39)은 세 차례에 걸친 예루살렘 침공과 이들을 물리친 유다 마카베오(Judas Maccabeus) 이야기를 다룬다
    - 첫 번째(3 장) 공격은 셀루쿠스(Seleucus Ⅳ) 통치시 헬리오도루스가 성전기물을 약탈할 때.
    - 두 번째(4:1-10:9)는 안티오쿠스 4 세(에피파네스)로부터 시작하여 성전을 되찾아 정결케하기까지.
    - 세 번째(10:10-15:36)는 안티오쿠스 5 세(유파토) 때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군대장관 니카노(Nicanor)를 물리친 이야기.
  - 두 개의 서문(1:1-9; 1:10-2:18)은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누카(Hanukkah)를 지킬 것을 촉구.
- 순교자 이야기
  - 한 어머니와 일곱 아들 이야기: 마카베오하 7 장
  - 육체적 부활 사상
    - After him, the third was the victim of their sport. When it was demanded, he quickly put out his tongue and courageously stretched forth his hands, and said nobly, "I got these from Heaven, and because of his laws I disdain them, and from him I hope to get them back again." (2 Macc 7:10-11)
    - 순교자는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고, 이런 믿음은 부활사상에 근거한다.
    - 이 부활사상은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속죄제물을 바치는 예식을 가져온다(마카베오하 12:39-45; cf. 고전 15:29).

생각해 보기

1) 나는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믿나?

2)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왜?